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2017년 담양군의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 기 간 : 2017. 11. 07.(화) ~ 11. 15.(수), 7박 9일
- ☐ 연 수 국 : 동유럽, 발칸
- ☐ 인 원 : 17명(의원 7, 의회사무과 직원 7, 집행부 3)



담양군의회

목 차

I. 해외연수 개요	3
II. 연수국 방문결과	
1. 일 반 현 황	8
2. 주요 방문지 및 세부 연수 결과	
가. 오스트리아 게트라이드 거리, 모차르트 생가	10
☞ 시사점	11
나. 체코 발티체 와인마을	11
☞ 시사점	12
다.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동굴	14
☞ 시사점	15
라.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16
☞ 시사점	17
마. 헝가리 중앙시장	18
☞ 시사점	19
III. 7박 9일 연수 후 시사점	21

담양군의회 해외연수 보고

선진 외국에 대한 연수·체험기회를 통한 국제적인 안목과식견을 배양하고 의원의 발전적이며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담양군 군정정책의 방향 설정 및 주요시책 수립 등 대응방안 강구와 지역의 세계화·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I. 연 수 개 요

- 연수일정 : 2017. 11. 07.(화) ~ 11. 15.(수) 7박 9일
- 연수국가 : 동유럽 5개국
 -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 연수인원 : 17명(의원9, 의회사무과 5, 집행부 3)
- 연수대상
 - 동유럽 지방의회 제도 및 의정활동 지원방안, 도시재생, 역사자원 활용, 자연경관 및 세계문화유산을 이용한 관광상품화 개발현황 벤치마킹등
 - 프라하 1구청, 체스키 크롬로프
 - 체코 발티체 와인마을, 헝가리 중앙재래시장, 크로아티아 돌락시장
 -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동굴, 크로아티아 플리비체 국립공원
 - 잘쯔부르크 간판거리, 천문시계, 쉐부른 궁전, 엘라치치 광장등
- 연수목적
 -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담양군의회 의원 의정자료 수집과 의정능력향상
 - 담양군 군정정책의 방향 설정 및 주요 시책수립 등 대응방안

강구와 지역의 세계화·국제화마인드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o 기대효과

- 동유럽 국가의 의정현황 및 의사결정 방법, 단체장 선출 방법등 선진 지방의회 제도를 비교시찰하여 우리군의회에의 세계화·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 자연그대로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여 위험구간에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의 정신을 본받아 생태도시 담양의 군정 방향 설정 및 지역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 안목을 배양하며
- 와인마을 와이너리를 방문하여 1차 생산물을 토대로 2차(가공), 3차(농장체험등)가 결합된 6차 산업으로 방문객을 맞이 하여 컨테츠를 개발하고 있는 현황과 농정개혁과정에서 농업보조를 철폐하여 농업인 스스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작목을 선택하고 조직화 하여 소득 증대를 위한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 경영관리능력을 향상하여 농업의 자생력을 키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 수백년이 지난 중세시대 건축물등에 대한 보존·관리 기법과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화 전략과 역사와 문화 유적보존을 위한 자치단체 및 의회, 시민단체등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학습하는등
- 선진외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방안 모색 등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 배양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은 물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의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연수자

직	성명	비고
의장	김기성	의원
부의장	이규현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옥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	
의원	윤영선	
"	김정오	
의사담당	김천균	의회사무과
주무관	김상진	
"	이승남	
"	한성현	
"	박교식	
"	이은혜	
"	임규완	
부군수	조용익	집행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	
주무관	박승철	

o 연수일정

일 자	출발 지	도착지	시간	교통	주요 방문지	주 요 일 정 (업무수행 내용 등)
11. 7 (화)	담양 인천	인천공항 오스트리 아	04:00 13:00	버스 항공		담양출발 인천공항 도착, 출국수속 인천공장에서 비엔나 출발
11.8 (수)	비엔나	발티체 프라하	전일	버스	발티체 성, 와이너리 방문, 프라하 구시가지, 구시청사 견학	민주화 성지인 바츨라프 광장의 도시재생사업 선진 사례 비교 시찰
11.9 (목)	프라하	체스키 크롬로프 프리모 부르크	전일	버스	프라하 구의회(구청) 체스키 크롬로프 성, 망토다리, 스보르노스티 광장, 구시가지	프라하 의정현황 및 의사결정, 구청장 선출 방법등 지방의회 제도 비교 시찰 전통적인 건축물을 보존하는 선 보존, 후 개발 정책 분석, 건축물을 중심으로 도보 관광정책 학습
11.10 (금)	체스키 부데요 비치	잘츠부르크	전일	버스	호헨 잘츠부르크성, 미라벨 정원, 전통시장	수백년이 지난 중세시대 건축물을 보존·관리 기법과 문화적인 정체성 을 유지하며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 광자원화 전략 학습
11.11 (토)	잘츠 부르크	블레드 포스토니아 오파티야	전일	버스	블레드 호수, 블레드성 포스토이나 동굴	주요 관광지의 특색있는 관람방식 및 관광시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광지 보존방안 비교 시찰
11.12 (일)	오토락	플리트 비체 자그레브	전일	버스	플리트 비체 국립공원, 돌락시장	자연경관 보존으로 위험구간에 안전시설물 미설치에 대한 안전 대책 방안 확인, 관광지 재난 안전 교육 및 예방시스템 확인 지역민의 시장진출과 소득증대 활성화를 통한 민관 합동관리 방안 시찰
11.13 (월)	자그레 브	부다페스트	전일	버스	겔레르트 언덕, 헝가리 100주년 영웅광장	역사와 문화 유적 보존을 위한 자치 단체 및 의회, 시민단체 등의 역할 과 협력방안 학습
11.14 (화)	부다페 스트	비엔나	전일	버스	센브룬 궁전, 슈테판 성당	한국과는 다른 궁전문화와 성문화에 대한 비교 시찰, 환경 보전에 우선한 교통 정책과 운전자의 휴식권을 보장 하는 정책 비교 시찰
11.15 (수)	비엔나	인천 담양군청	18:10 15:55			비엔나에서 인천항 출발 인천에서 담양 출발

연 수 보 고 서

II. 연수국 방문결과

□ 오스트리아



1. 일반현황

- 수도 : 빈
- 면적 : 83,871km²
- 인구 : 875만명(2017)
- 언어 : 독일어
- 국민총생산(GDP) : 4,093억달러(2017)

2. 의회형태

- 의원내각제 국가로 상·하 양원제의 입법기관인 연방의회에 의해 통치된다. 하원은 183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회이며, 비례대표제에 의해 일반투표로 선출된다. 상원인 연방의회는 9개 주의 입법부에 의해 선임된 63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6년의 임기로 일반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주로 공식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원수로서 활동하며 하원의 가장 강력한 대표자가 있는 당에서 각료회의의 의장이 되는 수상을 지명한다.

2. 주요방문지 세부 연수 결과

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게트라이드 거리(간판 특화 거리)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구시가지에 있는 거리로 중세시대 때부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판만 봐도 무엇을 파는 상점 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그 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게트라이드 거리]

□ 모짜르트 생가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구시가지에 위치하여 있으며 모차르트가 1756년에 태어나 17세까지 살던집으로 260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잘 보존되고 있으며, 현재는 박물관으로 활용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모짜르트 생가 전경]

● 찰쯔부르크 방문 후 시사점

- 찰쯔부르크는 오스트리아 서부 독일국경에 인접하고 있으며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이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중세모습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모차르트 생가를 방문하고 게트라이드 간판거리를 통해 많은 영감과 깨달음을 얻고 있다.
-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나 사회적 인프라 구축보다는 관광 수입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체코

1. 일반현황

- 수 도 : 프라하
- 면 적 : 78,867km²
- 인 구 : 1,067만명(2017)
- 언 어 : 체코어
- 국민 총생산(GDP) : 2,096억달러(2017)



○ 의회형태

- 의회는 양원제로 전에 체코 국가위원회였던 하원은 4년의 임기를 지니는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은 상·하 의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가. 프라하 제1구청

- 프라하 1구청은 프라하시의 행정의 중심으로 구의장이 구청장을 겸임하고 있다. 프라하 1구의회의 의원은 25명이며 8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들의 협의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다.



[프라하 제1구청]

● 프라하 제1구청 방문후 시사점

○ 프라하의 관광정책은 세계문화 유산인 프라하 시가지 보존과 관광 산업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세시대 이후 오랜시간 동안 우수하고 뛰어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보호해야한다는 시민의식과 그에 따른 행정의 하모니가 필요하였음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개발은 문화를 매개로 다른 지역과 구별시켜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함

특히 지역브랜드는 지역 전체의 이미지와 지역성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들이 함축되어야 함 그리고 주민들이 애착을 가질수 있는 문화자원 발굴도 필요하다고 느꼈음

가. 체코 발티체(와인마을)

○ 체코 남부의 도시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6세기 중반 리히텐슈타인 가문이 발티체 성을 자신의 주거주지로

결정하고, 이후 바로크 룩을 가미한 리모델링 공사가 17세기~18세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체코 정부에 의해 국유화 되었다.



[발티체 와인마을 전경]

● 체코 발티체(와인마을) 방문 후 시사점

○ 발티체 성 지하에는 국립 와인협회 ‘살롱빈’이 있고 매년 체코에서 선발된 와인 100선(발티체 와인페어)을 시음할 수 있어 지금은 포도밭 체험을 할 수 없지만 포도 수확철에는 체험과 시음까지 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했다.

담양도 물론 딸기 수확 체험 및 시식까지는 할 수 있어 프로그램상 별다른 차이점은 없으나 유럽인들의 가장 큰 장점은 옛것을 소중히 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것으로 역사의 깊이에서 오는 차이가 있었다. 지금은 흔한 건물이나 특산품이 100~200년이 지나면 훌륭한 지역유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상기하게 되는 일정이었다.

□ 슬로베니아



1. 일반현황

- 수 도 : 류블라나
- 면 적 : 20,273km²
- 인 구 : 197만명(2017)
- 언 어 : 슬로베니아어
- 국민 총생산(GDP) : 480억달러(2017)

○ 의회형태

-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인 국민평의회, 하원인 국민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 총 90석중에서 40석은 선출에 의하여, 50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를 얻어 총리와 각료를 임명한다. 총리가 실권을 가진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결선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방과 외교 정책만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정당은 자유민주당, 국민당, 기민당, 사민당, 민주당 등이다.

가.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동굴

○ 포스토이나 동굴은 200만년에 걸쳐 형성된 석회 동굴이다.

1213년에 발견되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동굴이다.

21km가 넘는 길이 중에서 5.2km까지 가 공개됐다. 꼬마기차를 타고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흐르던 강물이 점차 낮은 곳으로 물줄기를 옮겨가며 형성돼 깊이가 상당히 깊었으며 동굴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종유석과 석순등이 있었고 동굴내에서 눈이 퇴화된 도롱뇽이 있다.



[포스토이나 동굴 입구]

●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동굴 방문 후 시사점

○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동굴내부의 화려한 석순, 석주보다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인솔자의 철저한 직업의식 및 안전거리 유지였다 좁고 축고 어두운 동굴내에서 많은 인원을 인솔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였지만 그룹별로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관람을 유도하여 편안하 관람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동굴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였다.

□ 크로아티아

1. 일반현황

- 수 도 : 자그레브
- 면 적 : 56,594km²
- 인 구 : 429만명(2017)
- 언 어 : 크로아티아어



- 국민 총생산(GDP) : 534억달러(2017)

○ 의회형태

-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인 국민평의회, 하원인 국민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 총 90석중에서 40석은 선출에 의하여, 50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를 얻어 총리와 각료를 임명한다. 총리가 실권을 가진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결선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방과 외교 정책만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정당은 자유민주당, 국민당, 기민당, 사민당, 민주당 등이다.

가.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카르스트 지형에서 보이는 풍광의 전형

이며, 석회암과 백악위로 흐르는 물은 수천년 이상에 걸쳐 침천물을 쌓아 천연의 댐들을 만들었다

16개의 호수가 말라카펠라 산과 플레세비카 산 사이에 서로 잇닿아 있으며, 여러개의 폭포들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터운 삼림 지대가 둘러싸고 있으며 1979년에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등재되어 있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입구]

●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방문 후 시사점

○ 국립공원 안전요원의 빈틈없는 순찰과 공원 종사자들의 재난안전 교육 이수로 별도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철저한 자연환경을 보존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관광객 증가로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헝가리



1. 일반현황

- 수 도 : 부다페스트
- 면 적 : 93,028km²
- 인 구 : 985만명(2017)
- 언 어 : 헝가리어

○ 의회형태

- 1989년 10월 헌법개정을 통해 공산당의 독재가 종식된 의원내각제 국가로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내각을 이끄는 총리가 국가의 행정을 지휘한다. 총리는 대개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한 당의 당수가 맡으며, 국회의원은 보통·자유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1897년 개장한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며 1897년 개장한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 사바차그 다리 옆, 바치 거리 끝자락에 있어 찾기 쉽다. 노천이 아닌 실내에 위치해 날씨에 상관없이 편안하

게 이용할 수 있다. 1층에는 갖가지 채소와 과일, 치즈, 육류, 햄, 잼을 파는 식료품 가게가 즐비하다. 2층에는 헝가리 고유의 자수 공예품과 손뜨개 제품을 판매하고, 샌드위치나 햄버거 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푸드코트도 마련돼 있다.



[헝가리부다페스트 중앙시장 전경]

● 헝가리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방문 후 시사점

○ 시장은 그나라의 국민의 삶의 방식이 투영되어 있는 곳으로 동유럽 국가중에 가장 큰 시장이다.

시장은 판매물품 별로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구획이 나뉘어져 있으며 재래시장이기 보다는 현대화 시설로 변모하여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이 물건을 구입하기 쉽게 되어 있었다.

또한 물건 배치도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이 입구에 있어 손님들이 많았으며 상인 또한 여유가 있어보였다.

가장 큰 특징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청결하였다. 좋은 물건이 있고 구경거리가 많을 지라도 더럽다면 손님이 가지 않았을 것이지만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서비스에만 한정되지 않고 주변 정리도 매우 깨끗하였다. 예를 들어 지하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는데 보통의 시장이라면 비린내가 심하게 났을것인데 헝가리 중앙시장은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았다. 1층 정육점도 마찬가지로 가공육도 있지만 신선육도 팔기에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없지만 관리가 잘되어 있어 냄새가 나지 않았고 주변이 너저분 하지도 않았다.

몸에 익은 서비스 정신과 장사 철학등이 유럽의 다른나라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빼어났다.

IV. 7박 9일의 연수 후 시사점

- 유럽의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방문하여 의장과 간담회를 통해 의회 운영 방법과 정책결정등 구정 운영방법등을 알게 되었으며 유럽의 지방의회 제도는 우리나라 의회 제도와 유사하였으나, 의원내각제가 발달한 영향으로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고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인 점이 특색 있었음
- 또한 옛 역사·문화 유적 보존을 위한 자치단체 및 의회, 시민단체 등의 역할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군정 시책 개발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 그리고 유럽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려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히 주어진 조건이 좋다고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각 국가별 스스로 인공적인 미를 가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구시가지와 건축물들을 잘 보존·관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었으며
구시가지 전체가 관광 유적지인 유럽 도시들은 선 보존, 후 개발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프라하의 경우 구시가지 유적 보호를 위해 허가된 차량만 통행되고 중심 관광지는 차량이 운행되지 않고 도보 관광만 가능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각기 다른 개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단기간의 성과와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고유전통의 문화재와 접목하는 관광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음